

냉전기 북한의 상상 지리와 ‘평양 선언’*

옥창준 (서울대)

국문요약

냉전은 미국이 이끄는 자유 진영과 소련이 이끄는 공산 진영의 대립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냉전은 시간적 차원에서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종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냉전의 시간적 이해는 냉전적 잔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일련의 동아시아 문제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게 한다. 본 연구는 냉전에 대한 이해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로서, 냉전을 닫힌 해석의 공간이 아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열린 공간으로서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공간적 관점을 통해서 본다면 냉전은 진영을 넘나드는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를 포착하기 위해 1964년과 1981년에 채택된 ‘평양 선언’의 맥락과 북한의 자기 정당화 서사에 주목하며, 냉전을 바라보는 북한의 상상 지리의 변화를 추적한다.

주제어: 냉전,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 비동맹, 제3세계, 평양 선언, 상상 지리

* 익명의 심사자들의 날카로운 논평과 유익한 제언을 통해 논문의 제목부터 방향까지 재설정할 수 있었다. 북한-아프리카 관계를 보여주는 희귀한 영상 자료를 제공해 주신 최원준 작가님, 여러 관련 참고 자료를 추천해 주신 김도민, 우동현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언젠가 백만득 작가님도 만나볼 수 있길 바란다.

I. 들어가며

북한 외교사를 탈냉전적 시각에서 서술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은 반대로 현대 한국 외교사 서술에도 던져볼 수 있다. 최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발간한 대한민국 수교의 역사를 다룬 책의 제목이 “외교영토 넓히기”라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¹⁾ 국가 간의 수교를 외교영토의 확장으로 상상하는 발상은 한국인의 눈에 일견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제 국제연합 회원국 중 남은 미개척지는 총 3개국(쿠바, 시리아 그리고 북한)뿐이다. 쿠바, 시리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한국과 수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외교영토는 당분간 최대치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국은 수교의 양적 팽창에 몰두했을까. 한국의 수교 현황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이 한국과 북한을 항상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답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²⁾ 그러나 현재 남북한의 수교 경쟁에서 북한의 ‘침투’에 맞서 한국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오히려 그 의미를 엄밀하게 해석하는 명확한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교 사료 공개와 더불어 지역·사례별 해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³⁾

1) 김용호, 『외교영토 넓히기: 대한민국의 수교역사』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6). 이 책의 열개는 김용호, 「대한민국의 수교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시기별 주요 특성」 『인하사회과학논총』 30권 (2015).

2) 남북한의 외교 경쟁을 다룬 한 연구는 냉전기 한국 외교의 본령이 북한의 활동을 주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형, 「1980년대 초 남북한의 제3세계 외교 경쟁: 공개 외교문서(1979-1981)를 중심으로」 『동북아논총』 28권 1호 (2013).

3) 최근에는 한국의 수교 과정에서 기업인이 맡은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남북한 간의 분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현대 한국 외교사 서술이 승리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탈냉전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외교사 서술의 서사가 담보 상태에 있는 것과 맞물려, 한국 학계의 북한 외교사 이해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

특히 이는 북한과 제3세계 관계를 해석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다루는 냉전기에 생산된 '냉전적' 냉전연구는 주로 북한과 제3세계 관계를 북한의 자주로선, 그리고 그 외교노선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주체 사상으로 환원하여 설명했다.⁴⁾ 북한 자료가 김일성-김정일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기에, 이를 해석하는 방식도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어쩌면 사상 중심으로 외교사 연구가 진행된 것은 북한 외교가 현지에서 부딪힌 현실적인 경험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또 냉전이라는 국제체제적 변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북한과 제3세계가 공명할 수 있었던 지점이 잘 포착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냉전기 북한의 외교 경험을 좀 더 넓은 지평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이 글에서 냉전은 이미 평가가 종결된 역사적 시간대(1945-1991)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공간적 지평에서 해석될 것이다. 냉전은 흔히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인 매력 중 하나가 '경제력'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외교사 연구의 확장은 고무적이다. 문민기, 「1980년대 한국 대자본의 중국 경제교류 배경과 인식」 『역사문제연구』 22권 2호 (2018); 차정미, 「한중관계 초기발전과 기업의 외교적 역할: 1979-1986년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2권 4호 (2019).

⁴⁾ 대표적인 연구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엮음, 『북한외교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7); 김남식, 「북한의 대 비동맹 외교정책」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6).

양 진영의 긴장 상태로 차가운 단절의 이미지가 크다. 냉전기에 형성되고 고착된 휴전선이라는 경계선이 여전한 물리적·공간적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국인에게는 이와 같은 인식 틀이 더욱 더 강고하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진영 간의 단절이 깊으면 깊을수록, 진영 내부에서는 상호작용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냉전기 교류는 단순한 국가 간의 관계 그 이상의 원조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녔다. 냉전이 전 지구적 현상이었던 만큼 냉전기 상호작용은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섰다. 많은 이들이 익숙한 조국을 떠나 머나먼 이역만리에서 헌신했다. 일례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전후 복구 과정 당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등과 같은 동구권 국가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이들 국가 출신의 자문단은 북한에 상당 기간 머물며 북한의 전후 복구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⁵⁾

물론 당시에 그들이 표방했던 사회주의 형제에는 공식 문건에 기록된 단순한 구호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던 이들은 이전에는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지역에 와서 연대라는 이름하에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는 분명히 냉전이 그 이전의 시대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시대적 조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냉전기 공간 인식과 관념은 지금 우리가 냉전을 기억하는 방식보다 넓었고, 세계가 상호 연계된 정도 역시 상상외로 높았다. 한반도 남쪽으로 눈을 돌려 봐도, 미국의 존재는 주한 미군, 평화봉사단과 선교사, 입양인 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조국을 떠나 먼 곳에서 활약하는 많은 행위자를 통해서 한미관계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이라는 두 주권국

5) 북한은 이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관계를 ‘국제주의적 친선’으로 표현했다. 장준석 엮음, 『국제주의적 친선: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의 쓰련을 비롯한 형제적 제 인민민주주의의 국가 친선 방문 관계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가의 공식적 관계를 넘어서 더욱 끈끈하게 결합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급증한 북한의 고아와 어린 학생들이 동구권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던 시기도 바로 냉전기였다. 국가 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International Relations)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 수준에서 진행된 국제적 관계(Inter-national relations)가 어떤 양상이었는지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⁶⁾

냉전기 상호작용은 중심-주변 간에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냉전 연구가 냉전 논리에 기초하여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중심부의 주변부 개입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 최근의 냉전사 연구들은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주변부가 주변부에 개입하는 양상까지 포괄하기 시작했다.⁷⁾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한 연구들은 냉전기 대외 관계를 단순히 냉전적 논리로서 해석하고 평가하기보다는 행위자의 활동과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의미투쟁에 집중한다. 이들 연구를 통해 냉전기가 비단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립만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그 안에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은 새로운 냉전사 연구의 성과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냉전기 북한의 '상상 지리(imaginative geography)'라는 개념을 시론적으로 제시하

6) 이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최근 연구로는 김태경·이우영·구갑우, 「1950년대 북한의 두 '평화의 마음」 『통일과 평화』 11권 1호 (2019); 김보국, 「부다페스트 김일성 학원에서 북한의 전쟁고아 교육: 헝가리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권 1호 (2020).

7)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를 둔 선구적 연구는 쿠바의 아프리카 개입을 다룬 Piero Gleijeses, *Conflicting Missions: Havana, Washington, and Africa, 1959-1976*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소련이 아닌 제2세계 국가들의 주변부 개입과 관련된 연구로는 James Mark, Artemy M. Kalinovsky and Steffi Marung eds., *Alternative Globalizations: Eastern Europe and the Postcolonial Worl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20).

고자 한다.⁸⁾ 냉전기 세계를 해석하는 지리적 감각은 양 진영론에 입각한 ‘사상 지리(ideological geography)’와 ‘상상 지리’의 경계가 일치할 것으로 가정된다. 사상 지리가 압도적으로 지리적 상상력을 규정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냉전적 사상의 경계선과 냉전기 상상의 경계선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는데, 특히 아시아·아프리카의 탈식민 국가들의 등장, 비동맹 운동의 세력화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⁹⁾ 냉전은 사상 지리와 상상 지리의 끊임없는 균열을 조정하는 해석 과정이기도 했다. 대내적인 자긍심을 국제적인 지도력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국제질서의 변동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던 북한은 이 조정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¹⁰⁾

사상 지리와 상상 지리의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서 이 글은 평양에서 개최된 일련의 국제회의 이후 채택된 ‘평양 선언’에 주목한다. 그 대상은 1964년 평양에서 열린 ‘아세아(아시아) 경제 토론회’, 1981년 평양에서 열린 ‘식량 및 농업증산에 관한 빨럭불가담(비동맹)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토론회’이다. 1964년의 회의는 북한이 개최한 최초의 아시아·아프리카

-
- 8) 상상지리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오리엔탈리즘』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자연적 지리와 대비되는 심상(心想)으로서의 지리를 뜻한다. 사상지리는 한국문학 연구자 이혜령의 개념으로 “존재-장소에 대한 상상과 이동, 이동성을 배치, 규율하는 권력-지식의 작동”을 뜻한다. 사상지리와 상상지리의 길항에 대해서는 윤충로, 「냉전기 한국의 베트남전쟁 ‘읽기’와 ‘상상지리’: 1970-198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23권 (2019).
- 9) 최근에 와서야 북한과 반동 회의, 비동맹운동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홍종욱, 「1950년대 북한의 반동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잡지 『국제생활』 기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61권 (2018);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 김도민은 냉전기 진영 외교 내의 ‘균열’로서 반식민 문제를 접근한다는 점에서 이 글과 유사한 접근법을 취한다.
- 10) 제3세계의 지도자로 북한이 스스로를 표상하는 과정은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파주: 창비, 2013), 특히 제5장.

관련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1981년의 회의는 북한에서 열린 최초의 뽀럭불가담(비동맹) 관련 회의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각 회의 이후 채택된 평양 선언에는 당대의 세계를 바라보는 북한의 인식, 북한이 원하는 세계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글은 평양 선언의 내용보다도 평양 선언이 등장할 수 있었던 시대적 맥락을 짚고, 평양 선언을 통해 북한이 세계, 그리고 자신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지 주목할 것이다.

II. 1964년 아세아 경제 토론회와 자립적 경제 노선

1950년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를 대거 받았으며, 북한의 외교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1955년의 시점에서 북한이 수교를 맺은 국가는 소련,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동독, 루마니아, 알바니아,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북베트남 총 12개국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사회주의 진영 내의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외교 노선에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면이 존재했다. 북한의 국제주의는 꼭 소련 일변도의 정책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중소분쟁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1959)라는 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책은 북한의 혁명 전통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꼽으며 이를 가장 잘 체현한 조직으로 김일성의 항일유격대를 제시한다.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유격대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벌이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사회주의 조국 소련을 침공하는 일을 막고자 분투했고, 만주에서는 중국 인민과 적극적으로

로 협력하며 국제주의를 몸소 보여주었다.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유격대는 국제 혁명의 일환으로 조선 혁명을 추구해왔고, 이 과정에서 줄곧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의 통일과 단결, 그리고 식민지 민족해방 운동을 향한 지지, 세계 모든 진보적 운동과의 연대를 목표로 노력해왔다.¹¹⁾

이처럼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소련의 지도력에 대한 존중, 사회주의 진영 내 단결의 추구, 탈식민 민족해방운동을 향한 지지는 북한의 세계인식을 구성하는 주요한 축이었다. 소련의 지도력을 향한 유고슬라비아의 공격, 스탈린 사후 수면 위에 드러나기 시작한 소련과 중국의 갈등 등으로 사회주의 진영 내 구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빨치산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주체’ 노선이 제기되었다. 이와 맞물려 소련의 지도력을 존중하기도, 사회주의 진영 내의 단결을 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북한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를 향한 외교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57년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Afro-Asian Peoples' Solidarity Conference)에 대한 관심도 그 일환이었다. 1956년 수에즈 운하 국유화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에 맞섰던 이집트의 나세르가 1955년 반동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정신을 이어 받아 제창한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는 아프리카·아시아 제국(諸國) 인민에 특별히 관계가 있는 국제문제를 토의하고 두 대륙 간의 정치 및 경제 및 기술 협력, 사회적 발전 및 문화교류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민간 차원의 협력기구였다.

1957년 12월부터 1958년 1월까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제1차 인민단결회의가 개최되었다.¹²⁾ 이 때 북한은 소설가 한설야를 단장으로 하는 민

11) 한찬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44~45쪽.

12) 제1차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의 선언과 결의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제3세계관계자료집』 (서울: 국회도서관, 1978), 23~42쪽.

간 대표단을 구성하여 파견했다.¹³⁾ 북한은 회의 직후인 1958년 3월 20일 카이로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한다. 이후 카이로는 북한의 아프리카·중동 외교활동의 주요 거점이 된다. 제2차 인민단결회의가 개최될 예정지이자 1958년 10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기니를 독립 직후에 승인한 것을 고려해보면 인민단결회의의 참석 경험을 통해 북한은 아프리카의 탈식민 민족주의를 강렬하게 의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60년 4월 기니(Guinea, Guinée)¹⁴⁾의 코나크리에서 제2차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가 소집되었다.¹⁵⁾ 1958년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한 기니는 반식민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의 모임인 프랑상공동체(Communauté française) 가입을 거부하는 등 강력한 반식민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도 소설가 한설야가 북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¹⁶⁾ 회의 직후 북한과 기니는 상주 대사 관계(1960)를 수립했으며, 이후 기니의 코나크리는 북한의 서아프리카 외교의 거점이 된다.¹⁷⁾ 이후 북한은 아프리카 여러 신생독립국가 수반을 평양으로 활발하게 초청했다.

그 외교적 노력은 결실을 맺어 1964년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아시아·아프리카 34개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제2차 아세아(아시아) 경제 토

13) 한설야는 이 때의 경험을 『종합기행문집: 나일강반에서』(평양: 조선작가동맹 출판사, 1958)로 출간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고자연, 「한설야의 제3세계 인식: 1950년대 중후반의 기행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5권 (2019), 특히 제3장.

14) 한국은 영어식 표현인 '기니'를 쓰고 있으나 북한은 프랑스어식 표현인 '기네'를 사용한다. 이 글에서는 혼란을 피하고자 북한 측 자료의 직접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식 표현인 '기니'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15) 제2차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의 선언과 결의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제3세계관계자료집』, 43~48쪽.

16) 한설야는 이 회의 참석 이후 '흑아프리카 기행: 제2차 아세아·아프리카 인민단결회의와 관련하여'이라는 기행문을 『문학신문』(240-243호), 1960에 발표했다.

17) 기니와 한국이 대사급 관계를 수립한 건 2006년 8월의 일이다.

론회(Asian Economic Seminar)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개최된 최초의 '제3세계' 관련 국제회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이 회의는 어떻게 평양에서 개최될 수 있었을까. 이를 위해서는 제1차 아세아 경제 토론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제1차 아세아 경제 토론회는 196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스리랑카(실론)의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주최자는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의 아시아 지부였다. 하지만 이 회의는 당대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아시아의 두 거인 중국과 인도의 전쟁(1962년 10월 20일-11월 21일)이 가져온 충격 때문이었다.

전쟁에서 밀리던 인도가 중국과 이념 갈등을 벌이고 있던 소련과 더욱 밀착하고, 중국은 인도와 대립하던 친미 노선의 파키스탄과 접근하는 등 중국-인도 전쟁은 이후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운동에 깊은 상흔을 남긴다. 이는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인민단결회의에는 소련도 아시아 국가라는 이유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인민단결회의 내에서는 소련과 인도 그리고 중국의 격한 대립이 시작된다.

이 대립 구도는 1963년 2월 탄자니아 모시(Moshi)에서 열린 제3차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¹⁸⁾ 중국은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평화위원회(World Peace Council)가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에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 소련을 강하게 비판했고, 중국과 인

18) 본래 2년마다 개최되는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는 1958년 카이로, 1960년 코나크리에 이어 1962년에 정기 회의가 개최되었어야 했지만, 중국-인도 분쟁과 쿠바 미사일 위기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급변하며 정기 회의는 1년 연기된 1963년에 개최된다. 제3차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의 선언과 결의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제3세계관계자료집』, 48-54쪽.

도가 여전히 대립하는 가운데 소련이 인도를, 북한이 중국을 지지하는 등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 내부 분열이 더욱 격화되었다.

제3차 인민단결회의의 난맥상 이후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 집행위원회 회의가 1963년 9월 키프로스 니코시아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1965년 무렵 알제리의 알제에서 아프리카·아시아를 포괄하는 경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과 달리 북한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토론회가 1964년 6월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주최는 콜롬보 회의를 주도했던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의 아시아 지부가 맡았다.

실상은 ‘아세아 경제 토론회’였지만 이 회의 참가국은 알파벳 순서로 알제리, 앙골라, 오스트레일리아, 레소토(당시 바수톨랜드), 보츠와나, 카메룬, 스리랑카(실론), 중국, 콩고-브라자빌, 콩고-레오폴드빌, 감비아, 가나, 인도네시아, 이라크, 일본, 케냐, 북한(코리아), 말리, 모잠비크, 네팔, 뉴질랜드, 니제르, 북부 칼리만탄, 팔레스타인, 르완다, 소말리아, 서남아프리카(현재의 나미비아), 수단, 시리아, 타이, 우간다, 베트남민주공화국, 남부베트남, 잔지바르를 포괄했다.¹⁹⁾ 1963년 제3차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에서 중국과 대립했던 인도, 당시 인도를 지지했던 소련, 이집트, 모로코,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이 모두 초청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회의는 북한이 명백히 중국의 수정주의 비판 노선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평양 회의 말미에 ‘평양 선언: 자력갱생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자들

19) 「아세아 경제 토론회 평양선언: 자력갱생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하여」 동아일보사 안보통일연구소 엮음, 『북한 대외정책 기본자료집』 제1권: 북한과 중소분쟁, 북한과 제3세계 (서울: 동아일보사, 1976), 279쪽. 이는 『로동신문』 1964년 6월 24일자 기사이다.

이 원조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게 원조를 수단으로 삼아 진행된 경제적 침투 현상을 신식민주의의 전형적인 형태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정치적 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 혁명의 중국적 승리를 위한 첫 걸음이라 위치지으며, 민족해방 혁명의 중요한 단계로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을 내세웠다.²⁰⁾ 그리고 진정한 경제적 협조와 상호 원조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와 자주성,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효과적"이라는 평양 선언의 대원칙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자주적 해결이 필요했다.²¹⁾ 아세아 경제 토론회 폐막식에 참석한 김일성은 제국주의와 신구(新舊) 식민주의에 모두 반대하며 정치적 독립과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가 단결해야 한다고 제창했다. 그리고 북한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에 언제든지 연대할 것이라 천명했다.²²⁾

흥미로운 사실은 평양 선언에서 채택된 자립경제 건설이라는 목표가 기실 미국뿐 아니라 소련을 향한 비판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가 1964년 8월 18일 평양 선언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누구의 리익을 위함인가?")을 게재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프라우다』는 평양 회의를 소위 '제2차 아세아 경제 토론회'라고 비판하면서 본래 알제리의 알제에서 먼저 개최되었어야 했던 회의를 굳이 평양에서 소집한 배후에는 중국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이 존재한다고 보았다.²³⁾ 회의는 황급히 준비되었으며, 몽고인민공화국과 아시아의 대국

20) 위의 책, 280쪽.

21) 위의 책, 281쪽.

22) 김일성, 「아세아경제 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단을 위하여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64년 6월 23일)」 『김일성 전집』 3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71~272쪽.

23) 「누구의 리익을 위함인가?: 소위 제2차 아세아 경제 토론회를 논함」 동아일보 사 안보통일연구소 엮음, 『북한 대외정책 기본자료집』 제1권, 127쪽. 이는 『프

인 소련과 인도가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²⁴⁾ 이어 『프라우다』는 자립경제의 증거물로 평양 회의 참가자들이 참관한 평양의 방직 공장과 흥남의 비료 공장이 모두 소련의 설계에 기초하여 건설되고 소련의 기계 장비를 갖춘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프라우다』는 이들 공장이 북한의 선전과 달리 자립적 민족경제의 증거가 아니라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 협조가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꼬집었다.²⁵⁾

이에 북한의 『로동신문』은 소련의 논설을 반박하는 기사(“왜 평양 경제 토론회의 성과를 헐뜯으려 하는가?”)를 1964년 9월 7일에 게재했다. 『로동신문』은 아세아 경제 토론회를 마치 비법적인 기구인 듯이 말하는 『프라우다』의 주장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비위에 맞아야 하며 모든 것을 자기가 ‘승인’해야 한다는 대국주의의 산물이라 비판했다.²⁶⁾ 또한 아세아 경제 토론회가 알제에서 개최될 아프리카·아시아 경제 토론회를 무시하고 배치된다고 보는 관점이 오히려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아세아 경제 토론회는 알제 경제 토론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논박했다.²⁷⁾ 이어 평양 방직 공장과 흥남 비료 공장의 복구 건설에 소련 인민들이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공장을 전후에 복구한 데에는 조선 로동 계급의 창조적 노동과 지혜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리고 공장 복구 건설에 소련은 국제 시장 가격보다 훨

라우다』 1964년 8월 18일자 기사이다.

24) 위의 책, 127쪽.

25) 위의 책, 129쪽.

26) 「왜 평양 경제 토론회의 성과를 헐뜯으려 하는가?: 제2차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 대한 『쁘라우다』의 비방을 논박함」 동아일보사 안보통일연구소 엮음, 『북한 대외정책 기본자료집』 제1권, 135쪽.

27) 위의 책, 135쪽. 실제로 1965년 2월 알제리의 알제에서 아프리카·아시아 경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 토론회의 선언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제3세계 관계자료집』, 55-60쪽.

싼 더 비싼 자재를 주고, 그 대가로 훨씬 더 싼 가격에 원료를 강탈해 갔다고 비판했다.²⁸⁾

이어 『로동신문』은 소련이 신생국이 취해야 할 발전의 길로 “가장 발전된 개별적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조와 원조”에 의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민족의 운명을 남, 즉 소련에게 맡기는 일이라 배격했다. 또 평양 선언이 제창한 자립적 민족 경제가 폐쇄 경제나 고립 경제도 아니며 원조를 거부하는 행위도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원조가 자주적인 인민들 간의 평등 호혜의 원칙, 사심 없고 경제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것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이었다.²⁹⁾ 그리고 『로동신문』은 결국 제2차 아세아 경제 토론회가 누구의 이익을 위함이나고 묻는 『프라우다』에 대해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소련이 평양 선언을 비방하는 일은 그들이 이 지역 인민들의 전투적 단결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소련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일갈했다.³⁰⁾

이후 북한의 노선은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에 대한 강조로 나아갔다. 사실 이와 같은 노선을 국제적으로 일찍부터 제창해 온 국가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1955년 반동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했던 인도네시아였다. 1955년 인도네시아의 휴양도시 반둥에서는 유럽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이 모여 신생국가들의 단결과 협력을 모색했다.

비록 한반도의 분단 상황으로 북한은 1955년 반동 회의에의 공식 초청을 받지 못했지만, 1960년대를 지나며 북한의 위상은 국제무대에서 크게 높아진 상태였다. 1965년의 시점에서 북한은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

28) 동아일보사 안보통일연구소 엮음, 『북한 대외정책 기본자료집』 제1권, 141~142쪽.

29) 위의 책, 143쪽.

30) 위의 책, 147쪽.

의의 개최를 둘러싸고 중국, 인도네시아와 논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국격을 지닌 국가가 되어 있었다.³¹⁾ 실제로 이 무렵 북한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급속히 진전해 나갔다. 1964년 4월 인도네시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데에 이어서 같은 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지도자 수카르노의 방북까지 이끌어냈다. 수카르노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김일성은 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이는 김일성의 첫 비사회주의 국가 방문이기도 했다.³²⁾

흥미로운 점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북한에 대한 일정한 호응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역시 김일성의 알리 아흐람 연설을 언급하면서 “자립적 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³³⁾ 즉 북한의 자립적 경제 건설 경험이 동시대인들에게는 상당

31) 김일성은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반둥 회의를 주도했던 수카르노, 저우언라이와 함께 모여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개최를 논의하기도 했다.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여러 국가들의 노력에 관한 제1차 자료는 월슨 냉전 국제사 프로젝트에 일부 번역되어 공개되어 있다.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203/the-second-asian-african-conference>.

32) 1965년 김일성은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김일성화(Kimilsungia)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김일성의 1965년 인도네시아 방문에 대한 북한 자체의 평가로는 리춘희 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14~19쪽. 김정일 역시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수행했다. 김정일, 「신흥세력 나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자: 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1965년 5월 9일)」 『김정일 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북한과 인도네시아 관계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관점을 드러내는 연구는 요하네스 슐라이만, 「그리 낮설지 않은 동료들: 1960년대 인도네시아-북한 관계」 『동아연구』 71권 (2016).

33) 『로동신문』 1965년 4월 17일자. 김일성의 알리 아흐람 연설이란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알리 아흐람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1965년 4월 14일)」 『김일성 전집』 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이다. 이 연설은 김일성이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근간을 제시한 연설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 매력으로 다가왔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호응을 통해 북한은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라는 기존의 국제적 틀을 활용하여 제국주의에 맞서는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을 최대한도로 확장하려는 목표에 조금씩 접근할 수 있었다.

1965년 6월 19일,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개최 예정국이었던 알제리에서 쿠데타가 발발하여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적극적이었던 기존의 벤 벨라 정권이 붕괴했다. 이어 1965년 9월 공산주의자의 쿠데타 미수 사건으로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정권이 치명상을 입는 등 국제정세가 극적으로 변하면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몇 차례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이집트가 중심이 되었던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도 나세르의 죽음(1970) 이후 약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소 갈등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발견된 새로운 공간에 대한 탐색은 이후에도 줄곧 이어졌다. 북한과 뿔럭불가담(비동맹) 운동의 조우가 시작된 것이다.³⁴⁾

34) 한국에서 흔히 '비동맹'으로 번역되는 'Non-alignment'을 두고 북한은 '뿔럭불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남북한의 냉전기 인식차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Non-align'이라는 영어 단어는 '비제휴', '중립'의 의미에 가깝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비제휴이고 중립이냐의 문제인데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같은 '동맹'으로부터의 반대 개념으로 '비동맹'이 인식되었고, 북한에서는 '양대 진영(블록)'으로부터의 탈피 의식이 강조되었다 할 수 있다. 이는 각자가 강렬하게 체험한 냉전이 무엇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그 개념이 지닌 함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식 표현인 뿔럭불가담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Ⅲ. 1981년 뿔럭불가담 식량 및 농산물 증산 토론회와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북한 외교에 있어 1975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해였다. 1975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일성은 루마니아, 알제리, 모리타니,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했다. 특히 알제리, 모리타니의 경우 김일성의 첫 아프리카 대륙 방문이기도 했다.³⁵⁾ 아프리카 방문 이후 뿔럭불가담 회의의 제창자이며 이를 주도하는 국가인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한 김일성은 티토를 만나 의견을 교환했고 이후 뿔럭불가담 회의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티토의 노선을 '수정주의'라고 북한이 오랫동안 비판해 온 것을 감안할 때, 김일성과 티토의 만남 역시 의미심장한 변화를 상징했다.

티토와의 만남에서 김일성은 유고슬라비아의 “뿔럭불가담 정책이 현 시대 발전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각이(各異)한 사회제도를 가진 많은 나라들을 단합시키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전반적 국제정세 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추켜세웠다. 그리고 뿔럭불가담 정책의 원칙은 조선로동당의 자주적인 대내외 정책의 원칙과 일치한다고 발언했다.³⁶⁾ 이렇게 뿔럭불가담 운동과 스스로를 수사적으로 연결하며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 내의 일개 국가, 또 정치지리적인 개념에 가까웠던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를 넘어서려는 구상을 드러냈다.

35) 조선로동당출판사 엮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외국방문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36)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방문 중 오찬회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 동아일보사 안보통일연구소 엮음, 『북한 대외정책 기본자료집』 제1권, 342쪽. 이는 『로동신문』 1975년 6월 8일자 기사이다.

이미 김일성은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가 확장된 형태인 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OSPAAL, Organization of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기관지 『트리콘티넨탈』(Tricontinental)에 기고한 글에서 ‘큰 나라들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작은 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국주의는 작은 나라들을 각개격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맞서 작은 나라들이 서로 ‘달라붙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⁷⁾ ‘수정주의’ 소련에 이어 ‘교조주의’ 중국 역시도 미중 화해로 나아가는 등 1970년대 세계 냉전의 구도가 다시금 흔들렸다. 이 속에서 큰 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북한의 인식은 이처럼 ‘작은 나라’에 대한 강조로 나아갔다. 이후 북한은 ‘달라붙는’ 전략 하에 빨럭불가담 운동의 가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외교적 노력은 곧 열매를 맺어 1975년 8월 페루에서 열린 리마 빨럭불가담 국가 외교부장 회의에서 북한의 가입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는 북한의 대외 노선이 1) 평화적 공존에 기초를 둔 자주적 정책을 펼 것, 2) 민족해방운동을 무조건 지지할 것, 3) 군사블록에 속하지 않으며 군사조약에 참가하지 않을 것, 4) 동서분쟁과 관련된 지역적 군사동맹이나 쌍무협정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 5) 자국 영내에 외국 군대의 기지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빨럭불가담 회의의 대원칙을 충족시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빨럭불가담 국가들의 대외적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도 해석되었다.

빨럭불가담 회의 가입은 북한의 단독 가입을 막기 위해 남한이 가한 외교적 공세를 딛고 얻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이는 북한 내에서 더욱 큰

37) 김일성,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체 게바라 전사(戰死) 한뫼에 즈음하여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 리론잡지 <뜨리콘띠넨탈> 제8호에 발표한 논문 (1968년 10월 8일)」 『김일성 전집』 4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31~32쪽.

의미를 지녔다.³⁸⁾ 김일성은 1975년 리마 빨럭불가담 회의에서 보인 남한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조소했다. “남조선괴뢰는 빨럭불가담운동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며 거기에는 미제의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남조선괴뢰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만행에 동조하는 자들입니다. 인도지나인민들이 자기 나라를 해방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때 미제의 앞잡이로서 거기에 가서 제일 악질적으로 만행한 것이 남조선괴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빨럭불가담 운동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³⁹⁾

1980년대 빨럭불가담 운동 내에서의 북한의 적극적인 행보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1981년 2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빨럭불가담 외교부장 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은 1981년 6월 평양에서 식량 및 농업 분야 조정국 회의(1981년 6월 10일-12일)를 개최할 자격을 획득했다. 이어 1981년 8월에는 평양에서 식량 및 농산물 증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북한은 빨럭불가담 회의에서 식량 및 농업, 여성의 역할, 과학 기술 개발, 어업, 보건 분야의 조정국(coordinator) 역할을 맡았다. 이는 빨럭불가담 회의에서 북한의 비교우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1981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식량 및 농산물 증산 토론회(Symposium on Non-Aligned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on Increasing

38) 당시 리마 회의의 충격으로 한국의 김동조 외무부장관이 사임하기에 이른다. 한국의 (준)정부기관에서 제3세계 관련 자료집을 편찬하고 관련 연구를 본격화한 것은 1975년 이후의 일이다. 대표적으로 당시 외무부 동부 아프리카 담당관이었던 김승호가 비동맹국가에 대한 외교전략 논문을 작성했다. 김승호, 『비동맹국가에 대한 외교전략: 아프리카, 중동지역 비동맹국의 유형에 따른 선별적 외교전략 모색을 중심으로』(서울: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1978).

39) 김일성, 「일본 《마이니썬싱》 편집국장 일행과 한 담화(1975년 11월 26일)」 『김일성 전집』 5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264쪽.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ion)는 북한이 유치한 첫 뿔럭불가담 회의였으며 이는 1961년 창립된 뿔럭불가담 회의 20주년과 맞물려 더욱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8월 23~25일에 걸쳐 참가국 대표단이 속속 평양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 회의에 참가한 국가 및 조직은 알파벳순으로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볼리비아, 부룬디, 카메룬, 카부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코스타리카, 쿠바, 키프로스, 에콰도르,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가봉, 캄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모잠비크, 네팔,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해방기구, 파나마, 페루, 루마니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우간다, 부르키나파소(오트볼타), 베네수엘라, 베트남, 북예멘, 남예멘, 유고슬라비아, 자이르, 잠비아, 짐바브웨였다. 뿔럭불가담 운동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던 만큼 회의의 지리적 범위가 대폭 확장된 것이 눈에 띈다. 이 회의에는 G-77뿐만 아니라, 식량농업기구(FA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의 국제기구도 참가했다.⁴⁰⁾

식량의 자급자족, 개별적 및 집단적 자력갱생을 논의한 1981년 평양에서 열린 토론회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진행되었다.⁴¹⁾ 8월 31일

40) 『로동신문』 1981년 8월 27일.

41) 8월 29일에는 각국 대표단이 만경대와 평양 시내 및 주변의 협동 농장을 방문했으며, 8월 30일에는 모란봉 경기장에서 9월 1일 뿔럭불가담의 날을 기념하는 집단체조를 관람했다. 8월 31일에는 김일성과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농업 부장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로동신문』 1981년 8월 30일~9월 1일.

에는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평양 선언'을 채택했다.⁴²⁾ 이 선언은 우선 여러 신흥개발국가들과 발전도상 나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량 및 농산물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통해 늘어나는 식량의존은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후과를 낳았고 식량을 정치경제적 압력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이들 국가의 정치적 독립 자체도 위협받고 있었다.

회의에 모인 국가들은 현재의 식량 및 농산물 불안정 상태의 원인은 식민통치에서 남겨진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에 기반을 둔 국제경제체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식량의 자급자족이었다. 평양 선언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일국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뿐 아니라 동시에 신흥개발국가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협조와 연대의 강화를 통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100개의 발전도상나라들이 한가지씩의 기술만 내놓아도 100가지의 기술을 섭취할수 있다. 토론회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기술이 있는 나라는 기술을 가지고 자원이 있는 나라는 자원을 가지고 자금이 있는 나라는 자금을 가지고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그들의 식량 및 농업 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고 확신하였다."⁴³⁾

김일성은 휘황찬란한 선언문의 채택만큼이나 실질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서아프리카에는 기니에, 동아프리카에는 탄자니아에 농업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농업연구소에 시험농장들을 만들고,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여러 방식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42) 『로동신문』 1981년 9월 1일.

43) 위의 글.

이를 일반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⁴⁴⁾

이처럼 북한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세계에 직접 보여 주고자 했다. 이는 1964년 평양 선언에서 북한이 제창한 “완전한 평등과 호혜, 자주성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한 경제·기술적으로 효과적인 원조”의 구체적인 형태이기도 했다. 북한은 자국의 자립적 경제 모델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농업 부문의 자립화가 이루어져야 뿌리불가담 운동이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은연중에 주장하며 이와 같은 정신을 아프리카에 전파하여 자국의 지도력을 확인, 행사하고자 했다.

최근 북한에서 이 시기 기니로 파견된 농업 일꾼들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소설 『조국을 떠나 먼 곳에서』가 발간되어 주목된다.⁴⁵⁾ 이 소설은 아프리카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 근교 킨디아 주(州) 킬리씨(Kilissi)에 1982년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를 설립한 인물 등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북한과 아프리카의 연대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실화소설은 사실에 기초에 두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기억하는(혹은 기억하고 싶어하는) 아프리카 개입의 양상을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이기도 하다.

소설은 1981년 12월 기니로 농업기술자들이 파견된 이유를 현지조사 단장 김계현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 파견은 ‘단순한 경제교류’가 아니라 아프리카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식량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경제적 자립을 이룩

44) 김일성, 「아프리카나라들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뿌리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토론회에 참가한 동서아프리카나라 농업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1981년 8월 31일)」 『김일성 전집』 7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8), 136~137쪽.

45) 북한의 실화소설은 ‘소설’이기도 하지만 ‘실화’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는 “실재한 인간들과 그들의 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소설의 한 형태”이지만 “다른 소설에서와는 달리 허구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사실에 기초하여 형상을 창조”한다. 리현순, 『문학형태론』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7), 83쪽.

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데 관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1년 11월 기니로 가는 조사단과 관련하여 실무적 차원의 준비와 협의가 마무리되고⁴⁶⁾, 12월 김계현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기니로 파견되었다.⁴⁷⁾ 소설에서는 기니에 파견된 북한 조사단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기니의 이웃국가인 시에라리온에 암약하고 있는 미국 계 첩보 조직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합(AILD)’과 시에라리온의 ‘한국문화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첩보 조직의 사보타주 활동이 언급된다. 이들은 기니 농업부 내의 선(線)을 통해 기니에서 북한의 동향에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이미 확보해 둔 상태였다. 이들은 기니에서 늘고 있는 북한의 활동과 농업과학연구소가 건설되었을 때 오는 국제정치적 파장을 의식하고 있었다.

“지금도 아프리카통일기구(OAU) 수뇌자 회의를 웅장화려하게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 않소. 그런데 이제 또 농업과학연구소까지 건설해보우. 기네는 조선판이 된단 말이요, 조선판이...

그래 이것이 간단한 문제요? 기네에 농업과학연구소를 건설하고 주변 나라들에는 시험장들을 건설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농업이 도입되어 식량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이데올로기아적인 영향이 보다 커지게 된단 말이요. 이렇게 동서아프리카를 타고 앉으면 우리의 대아프리카 정책에 큰 파렬구가 생길 수 있소.”⁴⁸⁾

46) 김일성, 「기네와 탄지니아에 조직하는 농업과학연구소에 파견할 일군들과 한담화(1981년 11월 9일)」 『김일성 전집』 7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부, 2008).

47) 실화소설에 나오는 김계현은 실제 김계현(金桂賢)을 모델로 한 인물이다. 『북한인명사전』에 따르면 김계현은 1948년 모스크바에 유학했으며, 1963년 농업과학원 원장을 맡았으며, 1981년 8월 평양 회의에 농업과학원 연구사로서 참석했으며 같은 해 11월 농업과학원 대표단장으로 기니를 방문했다. 중앙일보 동서문제연구소, 『북한인명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1983), 35쪽. 실화소설에 등장하는 부단장 김용숙 역시 실존 인물로 확인된다. 같은 책, 89쪽.

48)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합 총재 블랙크 빌(Black Bill)의 발언이다. 백

소설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요원들은 기니의 농업 관련 간부들이 1981년 8월 평양 회의에 참석하는 일을 막고자 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아프리카에 ‘평양물’이 들어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평양을 본 따 자주, 자립, 자위의 길로 나간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이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땅에서 부득불 쫓겨날지도 몰랐기 때문이다.⁴⁹⁾ 그래서 이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1981년 8월 평양 회의가 아니라 1981년 11월 로마에서 개최되는 식량농업기구(FAO) 회의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사과나무를 키우는 방법”보다 우선 “사과알을 받아 먹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급선무”였기 때문이다.⁵⁰⁾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베안진 세네농(Behanzin Senainon)이 이끄는 기니의 농업 관련 간부들은 평양 회의에 참석한다. 1981년 평양 회의에 참석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온 그들은 정력적으로 농업과학연구소 설치를 추진한다.⁵¹⁾ 서방 국가의 사주를 받고 있던 기니 내부 인사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기니 정부와 북한 농업 일꾼들은 수도 코나크리 근처 작은 마을인 킬리씨에 농업과학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연구소 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북한 측은 이를 당시 기니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세쿠투레농업과학연구소’로 명명하고자 하나, 기니 측은 이와 같은 북한 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라는 이름 붙일 것을 간청한다. 결국 기니 측의 간곡한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만득, 『조국을 떠나 먼 곳에서』, 41~42쪽.

49) 위의 책, 57쪽.

50) 위의 책, 59쪽.

51) 소설에서는 기니 대표로 평양 토론회에 참석한 ‘베한진 세네농’이 김일성의 연설을 들으며 감격하는 내용이 나온다. 위의 책, 26~30쪽. 실제로 베안진 세네농은 1981년 8월 평양 회의에 참석하여 연회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 『로동신문』 1981년 8월 27일. 또 그는 북한의 농촌 상황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로동신문』 1981년 8월 30일.

1982년 1월 13일,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가 창설된다.⁵²⁾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가 설치되는 과정은 길리씨의 촌장 꼴리바르의 꿈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환상적으로 묘사된다.⁵³⁾ 꼴리바르는 북한 농업과학 연구진이 오기 전 날 묘한 꿈을 꾸다. 매년 홍수나 가뭄으로 고생하는 길리씨 마을을 생각하며 꼴리바르는 전지전능한 알라의 계시를 받기 위해 근방에서 제일 높은 산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그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백발의 노인은 꼴리바르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물이 필요하단 말이지.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새겨듣거라. 지금까지 너희들은 서쪽을 향해 걸어왔거늘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꾸어 동쪽을 향해 갈지어다. 그쪽으로 가면 해쑈는 나라가 나질 것이다. 거기에 가서 물다스리고 씨앗뿌리는 일을 맡아보는 신하에게 너희들의 소청을 태양님께 아뢰여달라고 청드리도록 하여라. 너희들이 이제 이 길을 헛갈리면 천길 기아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영영 솟아나지 못할지어다. 알아들었느냐?”⁵⁴⁾

꼴리바르는 이 말을 듣고 ‘동쪽’(이는 북한의 상징임이 분명하다.)으로 나아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을 만나 계속해서 동쪽으로 걸음을 재촉하다가, 동쪽 하늘에서 흰 옷을 입고 길리씨 방면으로 날아가는 사람들, 이른바 ‘구원의 용사’들을 만난다.⁵⁵⁾ 여기에서 태양은 김일성을,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사람들은 길리씨

52) 『로동신문』 1982년 1월 19일.

53) 꼴리바르는 젊은 시절 프랑스 부대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한 바가 있었다. 전투 중 한 인민군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던 꼴리바르는 후에 그 인민군이 조사단 부단장인 김용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김용숙이 자신을 알아볼까 불안에 시달린다. 훗날 김용숙과 꼴리바르는 이전의 앙금을 잊고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와 길리씨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친다.

54) 위의 책, 84쪽.

55) 위의 책, 85쪽.

에 파견된 북한 조사단을 상징한다는 점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파견된 탄자니아의 사업단(이들의 연구소의 명칭은 천리마농업과학연구소였다.)과 비교할 때 기니 농업과학 일꾼들의 초기 성과는 미약했다. 그렇다면 왜 실화소설은 탄자니아가 아니라 기니의 이야기를 소설화했을까. 이는 김일성의 이름을 딴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라는 연구소의 명칭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일성의 체계적인 지도와 교시 아래 연구소의 실적이 변모했음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일성은 기니에 파견된 농업과학 일꾼들이 기니 사람들에게 그 나라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주체농법을 기후조건이 우리 나라와 비슷하고 인구가 많은 아세아나라들에서는 좋다고 할수 있지만 아프리카나라들에서는 잘 받아들지 않을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네실정에 맞는 농사방법을 연구하여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탄자니아에 가있는 농업과학일꾼들도 농사를 헐하게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라고 하여야 합니다.”⁵⁶⁾

김일성의 교시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은 후, 기니의 북한 일꾼들은 기니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지식인,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성적으로 임무에 임한다. 이는 길리씨 마을 주민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신기한 풍경이 아닐 수 없었다. 북한 일꾼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존경과 동시에 걱정과 측은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풀리바르의 목소리를 빌려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6) 김일성, 「기네의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에 가있는 농업과학일꾼들과 한 담화 (1983년 2월 21일)」 『김일성 전집』 7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8), 132~133쪽.

“프랑스 사람들, 도이칠란트나 에스빠냐 사람들, 누가 저런데서 잠을 자려고 하겠는가. 그들은 한두달 와서 생활하여도 녀편네들을 데리고 와서 호텔 같은데서 편안히 생활하다가 간다.

아담한 주택이나 호텔이 없이는 이런데 오지도 않는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왜서 거리낌없이 저런데서 자는가. 저 사람들은 유럽사람들보다 기술이 못해서 저렇게 대우조건을 탓하지 않을까? 월로임을 적게 받을 수도 있지. 저 사람들은 얼마나 받는지...”⁵⁷⁾

꿀리바르는 이를 직접적으로 질문한다. “여기 와서 조선농업과학자들이 로임을 얼마나 받습니까? 이렇게 생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일하자면 로임을 많이 타야 하겠지요?” 이에 대해 기니 현지조사단원 백진석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려 왔습니다. 때문에 우린 그 사람들처럼 높은 요구조건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중략)… “촌장동무는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혁명선렬들인 항일유격대원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견디어내며 일제침략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가 늘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그런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유럽 나라 과학자들에게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⁵⁸⁾

백진석은 농업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기니 청년에게 기니 인민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일의 의미를 열렬히 강의한다. ‘진심’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기니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줌을 뜻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아프리카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시

57) 백만득, 『조국을 떠나 먼 곳에서』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8), 142-143쪽.

58) 위의 책, 198-199쪽.

면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리속을 차리지만 우리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하시었소. 그래서 우리가 여기와서 농업과학연구소를 내오고 기네 실정에 맞는 농법을 연구하여 농업생산을 늘이며 그것을 주변나라들에 일반화하여 모든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농업생산을 늘이도록 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요.”⁵⁹⁾

이어 백진석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유럽의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이었다면 북한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앞서 나온 ‘평양 회의’와 ‘로마 회의’의 대립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미 발전한 국가의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 및 신흥세력 나라들을 계속 수탈하면서, 심한 부등가교환과 불공평한 거래관계로 특징지어지는 무역거래 제도, 그리고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은 공업완제품을 생산하고 발전도상나라들은 원료, 반제품만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 편파적인 분업체계를 통해 착취와 약탈을 감행하고 있었다.⁶⁰⁾

이와 같은 착취는 비단 자본주의 국가들만의 행태는 아니었다. 소설은 사회주의 진영(코메콘, 러시아어로는 쉘브) 내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존재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흐루쇼프를 비롯한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쉘브를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정치적으로 예측시키기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제국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국제분업’을 제창하면서 나라별로 생산을 전문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레하면 알바니아에서 남새가 잘된다고 하면 남새농사를 전문으로 하여 남새를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고 그대신 필요한 기계들을 사다쓰라는 것이었다.

59) 위의 책, 355~356쪽.

60) 위의 책, 357쪽.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철광석이 탐나서 우리 나라를 썩브에 끌어들이 다음 혈값으로 철광석을 가져가고 기계제품 같은 것을 비싸게 팔아먹으려 하였다. 사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자주적인 경제건설로선 관철을 가로막고 저들의 지휘봉에 따라 고분고분 순종하게 하자는 것이었다.”⁶¹⁾

결국 발전도상 국가들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적 분업체계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지 않고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공업을 발전시켜야 했다. 이러한 경로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다. 백진석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서로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 사람이 건 나라이건 다시 식민지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힘을 키워 자체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식민지 노예살이를 하지 않으려거든 자립적 민족경제를 꼭 건설해야 한다는거요.”⁶²⁾

중요한 건 식민지가 아니라는 ‘선언’ 이상으로 자립적인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에 맞서는 동시에, 국내의 식민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인민들의 통합과 단결을 이끌어내는 일이 긴요했다. 이와 같은 단결과 자주성 추구가 반드시 모순되지는 않았다.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것이 꼭 협조를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협조는 제국주의 국가와 비식민지 국가의 협력이었다. 반면 빨럭불가담 국가 간의 협력은 자주와 단결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다.

61) 위의 책, 358쪽.

62) 위의 책, 360쪽.

“뽀력볼가담나라들 사이에는 서로 자주성이 존중되고 있으며 진실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뽀력볼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뽀력볼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은 세계의 인구와 령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뽀력볼가담나라들이 경제기술적 협조를 강화하여 이러한 방대한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한다면 빠른 시일안에 자립적 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⁶³⁾

1981년 뽀력볼가담 회의 창설 2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은 이 회의를 정치적 포럼을 넘어서, 남남협조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장으로 탈바꿈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남남협조를 통해서 북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바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해냈다는 자신감을 넘어서 북한이 지닌 경제 기술적 우위였다. 『조국을 떠나 먼 곳에서』에 등장하는 기니의 김일성농업 과학연구소 수립은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 개입 방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농업분야, 보건분야, 건설분야를 비롯하여 서로 교류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며 새로운 경제질서를 세운다면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 뽀력볼가담나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고 교육과 문화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으며 발전된 나라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숭배사상을 버리고 남남 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⁶⁴⁾

63) 김일성, 「유고슬라비아 파누그통신사 대외편집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6년 5월 29일)」 『김일성 전집』 5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213-214쪽.

64) 김일성,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1983년 9월 27일)」

그러나 북한의 바람과 달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성장을 위해 자립경제 노선이나 남남협조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이는 오랫동안 반식민주의 투쟁에 앞서왔던 기니도 마찬가지였다. 1984년 세쿠 투레 대통령 취임이 심장마비로 급사한 이후 기니 내부의 권력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된다. 이후 등장한 기니 신정권은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으로부터 수교를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고자 했다.

『조국을 떠나 먼 곳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조국을 떠나 먼 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북한인만이 아니었다. 1975년 리마 회의의 충격 이후 한국은 적극적인 제3세계 외교를 통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가 1984년 기니를 방문하여 경제 원조를 제안했고 이에 기니 정부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니를 포함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북한의 경쟁을 활용하여 그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으며, 북한이 제창한 남남협조 질서는 쉬이 오지 않았다.

IV. 나가며

이 글은 탈냉전적 시각에서 냉전 외교사를 서술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으로서 냉전을 시간이 아닌 일종의 공간으로 재해석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개최된 두 번의 평양 회의와 그 결과문인 평양 선언을 살펴보았다. 제3세계와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던 냉전기 한국의 제3세계 상상의 주체는 주로 문학가들이었다.⁶⁵⁾ 반면 북한의 제3세계 경험은

『김일성 저작집』 3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324~325쪽.

무척 다기했다. 북한은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뽀력불가담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냉전기 북한의 '상상 지리'는 당대의 외교적 경험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게 있어 냉전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립만으로 환원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적어도 196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뽀력' 논리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냉전 안에 진영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제국과 식민의 문제가 교차하는 또 다른 공간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제국주의와 맞서는 민족해방투쟁을 해 왔으며, 이를 자랑스러워하는 지도자와 함께 북한은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단결회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뽀력불가담 운동 등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와 탈식민의 대립 구도를 보여주는 회의들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었다.

또 냉전기의 식민성은 비단 정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냉전기에 독립을 이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뿐 아니라 일찍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루었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최대공약수는 경제 문제였다. 북한은 자국의 경제 건설 경험에 자부심을 지녔고, 이를 기초로 냉전기 북한의 활동 범위는 공간적으로 크게 확장될 수 있었다. 이를 북한의 '세계화'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세계화'는 북한의 자립적 경제 노선이 일정 부분 지구적 차원의 매력을 지닐 수 있기에 가능했다.⁶⁶⁾ 이와 같은 배경 하에 1964년 북한은 평양에서 아세아 경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또 제2차 반동 회의 개최를 준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1980년대부터는 수많은 북

⁶⁵⁾ 이는 한국의 문화냉전 연구에서 문학 연구자들이 활약하는 것과 관련된다.

⁶⁶⁾ 1964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영국의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은 북한의 전후 복구과정을 두고 이를 '코리아의 기적'이라 불렀다. Joan Robinson, "Korean Miracle," *Monthly Review*, vol. 16, no. 8 (1965).

한인이 조국을 떠나 먼 곳의 다른 국가들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 떠났다. 분단이 된 상황에서도 자력갱생하면서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했다는 북한의 자부심은 다른 많은 탈식민 국가 지도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두 차례의 평양 회의가 공통적으로 경제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한이 선택한 자주·자립 노선으로 인해 북한이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 원조나 군사적 안전보장 장치는 매우 적었다. 그렇기에 북한은 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북한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국내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을 고안했지만 북한이 지닌 국내적 역량은 서서히 소진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그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의 '세계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진영 논리에 입각한 세계는 종언을 고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탈냉전'은 냉전의 종식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질서의 일극이 된 미국 제국주의가 마수를 더욱 뻗치는 시기였다. 냉전이 지니고 있던 제국과 식민의 문제는 오히려 그 모순을 격하게 드러냈다. 북한은 소련 해체 이후에도 혁명을 위해서는 민족국가들 자체의 주체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소련과 동구권의 해체는 소련의 교조주의와 동구권의 사대주의의 약점을 드러낸 생생한 역사적 증거였다. 북한은 지난 시대의 역사의 교훈으로 “개별 국가의 인민이 사대주의, 교조주의, 대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승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꼽았다.⁶⁷⁾

67) 한은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 (평양: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2018), 336~337쪽.

1992년 4월, 김일성의 80세 생일을 맞이하여 북한은 전 세계 30여 개국의 사회주의 정당 대표들을 평양으로 소집했다. 지금까지 냉전기 평양에서 열린 회의들이 아프리카·아시아, 뿔럭불가담 운동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면, 오히려 탈냉전기에 사회주의라는 사라져 버린 공간이 강하게 의식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상상의 공간이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사상 지리’가 더 강화되고 만 것이다.⁶⁸⁾ 1992년의 평양 회의에서 북한은 소련의 해체 이후 세계혁명운동을 지도할 새로운 코민테른을 창설하자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다.

“하나의 국제적인 중앙이 세계 모든 나라 혁명을 지도한다는 것은 실패와 불행의 화근이고 현실성도 없는 일입니다. 현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각 나라 당들이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이 되어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고 혁명을 령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제당을 내오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대표들 중에는 이전에 쏘련당에 많이 의존했던 청소한 당들의 대표들도 있습니다. 쏘련당이 없어지니 의지할데가 없어 허둥거리는 것 같습니다.”⁶⁹⁾

새로운 코민테른 창설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이 제시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라는 이름의 1992년 4월 20일의 ‘평양 선언’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첫 공산당 선언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역사에 등장한 시기에 나왔다면, 이번 평양 선언은 사회주

68) 오히려 ‘탈냉전기’에 북한에서 ‘랭전’이라는 말이 일종의 시대를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민하, 「탈냉전기 북한의 냉전담론 연구: 1990-1994년 『로동신문』 분석」(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69) 리종렬, 『평양은 선언한다』(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521~522쪽. 김정일의 삶을 소설화한 불멸의 향도 총서 중 하나인 이 책은 김정일의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의가 좌절된 엄혹한 환경의 공산당 선언이라고 북한은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의 운동은 각 민족 단위의 당들의 확고한 자주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했다. 이 선언은 소련 해체 이후 세계를 살아가는 북한의 청사진이었다.

“사회주의 위업은 민족적 위업인 동시에 인류 공동의 위업이다.

모든 당들은 자주성, 평등의 원칙에서 동지적 단결과 협조, 련대성의 뉴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국제적 단결은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련합하여 사회주의와 인민들을 공격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들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은 국제적 판도에서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키며 또한 제국주의 지배와 자본의 예속, 신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 생존권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호상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모든 당들과 진보적 역량앞에 나서고 있는 국제적 의무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위업을 위한 일이다.”⁷⁰⁾

이 평양 선언은 사회주의의 공간적 범위를 북한이라는 일국으로 축소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북한이 이룩한 사회주의 위업은 곧 인류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위업으로 보편화되었다. 이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존재 이유가 단극화된 세계에서 자주와 주체의 깃발을 수호하는 혁명 기지의 역할을 맡으며 지도자를 옹위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현재 북한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기억되고 기념되는 다자 회담의 결과물은 1992년의 평양 선언뿐이다. 북한은 이 평양 선언이야말로 현재의 혁명 정당들이 나아갈 행동 방향을 규정한 지도적 지침이라 외치고 있으며, 최근에도 여러 정당들이 평양 선언에 서명하고 있

70) 『로동신문』 1992년 4월 22일.

다는 소식을 간간히 전한다.

반면에 탈식민 세계의 미래와 정의로운 남남협조 방안을 논의하던 1964년과 1981년의 평양 선언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식 기억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⁷¹⁾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혁명의 계승 서사가 강화되고, 핵무기의 확보 등으로 인해 정권의 생존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결과 세계에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지닌 매력은 떨어지고 있다. 1992년 평양 선언이 성공하는 만큼 북한이 세계에서 ‘개토화’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한다는 북한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과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방향이야말로 북한이 세계에 표방해온 가치이자 북한 자신의 매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1964년과 1981년의 평양 선언을 새삼 되짚어본 이유다.

■ 접수: 2020년 4월 30일 / 심사: 2020년 6월 18일 / 게재확정: 2020년 6월 19일

71) 『로동신문』 기사 중 원조 관련 기사를 전수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대 북한은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과 남남협력에 다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일성 시기의 ‘사심없는 원조’와 ‘국제적 협조와 의리’에 주목했다. 김지영, 「대외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로동신문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11권 3호 (2019), 34~35쪽. 앞에서 소개한 백만득의 실화소설 『조국을 떠나 먼 곳에서』가 등장한 시대적 맥락과도 통하는 대목이다.

【참고문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엮음, 『북한외교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7.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제3세계관계자료집』, 서울: 국회도서관, 1978.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파주: 창비, 2013.
- 김용호, 『외교영토 넓히기: 대한민국의 수교역사』,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6.
- 김일성 편저, 『김일성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1964.
- 김일성 저, 김정일 편저, 『김일성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1998.
- _____, 『김일성전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동아일보사 안보통일연구소 엮음, 『북한 대외정책 기본자료집』 제1권: 북한과 중소분쟁, 북한과 제3세계, 서울: 동아일보사, 1976.
- 리종렬, 『평양은 선언한다』,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 리춘희 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리현순, 『문학형태론』,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7.
- 백만득, 『조국을 떠나 먼 곳에서』,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8.
- 장준석 엮음, 『국제주의적 친선: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의 쓰련을 비롯한 형제적 제 인민민주주의 국가 친선 방문 관계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 조선로동당출판사 엮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외국방문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 중앙일보 동서문제연구소, 『북한인명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1983.
- 한은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 한찬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Gleijeses, Piero, *Conflicting Missions: Havana, Washington, and Africa, 1959-1976*,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Mark, James, Artemy M. Kalinovsky and Steffi Marung eds., *Alternative Globalizations: Eastern Europe and the Postcolonial Worl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20.

고자연, 「한설야의 제3세계 인식: 1950년대 중후반의 기행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5권, 2019, 51~94쪽.

김남식, 「북한의 대 비동맹 외교정책」,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6.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0.

김민하, 「탈냉전기 북한의 냉전담론 연구: 1990-1994년 『로동신문』 분석」,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김보국, 「부다페스트 김일성 학원에서 북한의 전쟁고아 교육: 헝가리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권 1호, 2020, 505~524쪽.

김용호, 「대한민국의 수교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시기별 주요 특성」 『인하사회과학논총』 30권, 2015, 91~122쪽.

김지영, 「대외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로동신문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11권 3호, 2019, 17~38쪽.

김지형, 「1980년대 초 남북한의 제3세계 외교 경쟁: 공개 외교문서(1979-1981)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28권 1호, 2013, 5~35쪽.

김태경 · 이우영 · 구갑우, 「1950년대 북한의 두 ‘평화의 마음」 『통일과 평화』 11권 1호, 2019, 157~191쪽.

문민기, 「1980년대 한국 대자본의 중국 경제교류 배경과 인식」 『역사문제연구』 22권 2호, 2018, 57~97쪽.

요하네스 슐라이만, 「그리 낯설지 않은 동료들: 1960년대 인도네시아-북한 관계」 『동아연구』 71권, 2016, 321~352쪽.

윤충로, 「냉전기 한국의 베트남전쟁 ‘읽기’와 ‘상상지리’: 1970-198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23권, 2019, 167~208쪽.

차정미, 「한중관계 초기발전과 기업의 외교적 역할: 1979-1986년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2권 4호, 2019, 53~86쪽.

홍중욱, 「1950년대 북한의 반둥회외와 비동맹운동 인식: 잡지 『국제생활』 기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61호, 2018, 374~406쪽.

Robinson, Joan, "Korean Miracle," *Monthly Review*, Vol. 16, No. 8, 1965, pp. 541-549.

Pyongyang Declarations : Imaginative Geography of North Korea during the Cold War

Ok, Chang J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Cold War is generally understood to be a period of geopolitical struggl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nd their respective allies, the Western Bloc and the Eastern Bloc. According to this understanding of the Cold War, the Cold War ends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Such a 'temporal' understanding of the Cold War narrows ou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n issues. This study aims to broaden our narrow understanding of the Cold War by interpreting the Cold War as a newly opened 'space' post-World War II. The Cold War is a period of various interventions between the Blocs and also across the Blocs. Focusing on 'Across the Blocs' relation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yongyang Declaration" adopted during the 1964 and 1981 Pyongyang conferences and analyzes the context of the Pyongyang Declaration and the Weltanschauung of North Korea during the Cold War.

Keywords: Cold War, Afro-Asian Peoples Solidarity, Non-alignment, Third World, Pyongyang Declaration, Imaginative Geography

옥창준(Ok, Chang Joon)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냉전기 한국 사회과학의 형성을 다루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다. 세계 냉전사에 관심이 많으며, 냉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어떻게 역사화할 수 있는가를 두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아시아·아프리카 상상」 28권 (2015)이 있다.

